

##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2월 18일 '제32차 정기총회 및 포장인의 날'에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과 공로상, 그리고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과 협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2월 18일 '제32차 정기총회 및 포장인의 날'에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과 공로상, 그리고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여했다.

이번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는 연구개발 부문에 박세철 (주)아이피씨 기술연구소 소장이, 수출진흥 부문에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장학생 부문에서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정우 학생과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신동현 학생이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한편 제3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은 이현철 (주)서일 소장이 수상했고 공로상은 신동윤 울촌화학(주) 회장이 수상했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연구개발 부문	박세철	(주)아이피씨 기술연구소 소장/상무이사
수출진흥 부문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
장학생 부문	박정우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신동현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

연구개발 부문

“지속적으로 친환경 잉크 및 접착제 연구”



박 세 철

(주)아이피씨기술연구소  
소장/상무이사

Q. 먼저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연구개발부문에 아이피씨의 필름 인쇄용 수성 플렉소잉크(AQUA-FLEX) 개발을

선정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산업계 최대 이슈는 환경 문제입니다. 특히 친환경 잉크 및 접착제에 대한 고객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형 컨버팅기업들이 플렉소인쇄기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렉소인쇄기에 적합한 수성 플렉소잉크의 국내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피씨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성 플렉소잉크 개발에 성공해 국산화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인쇄잉크 연구개발업무를 (주)다이앤씨에서 18년, (주)아이피씨에서 8년, 총 26년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아이피씨 기술개발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잉크 및 코팅제, 연포장용 접착제 관련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포장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순수 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인 ‘AQUA-FLEX’를 개발한 일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으로 첫째 잉크에 유해 유기용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둘째 채용해력이 우수해 수지판 세척이 용이하고, 셋째 고농도, 저점도로 설계되어 고선수(1,000선 이상/inch) 인쇄가 가능하며, 넷째 가공접착력이 우수해 T-Die나 논솔벤트 드라이 래미네이션 가공 사양에서도 우수한 접착 강도를 보인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컨버팅업계의 작업환경 개선, 범세계적 지구환경 보존의 일환인 탄소배출량 저감, VOC 저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개발된 AQUA-FLEX 잉크는 OPP필름에 가장 적합한 물성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 가공사양의 PET용, AL 표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소재의 범용적 사용을 위해 PET, NYLON, 처리 PE 등 다양한 소재에 적합한 물성을 가지도록 개발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연구개발 부문 상을 수상한 박세철 (주)아이피씨 기술연구소 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출진흥 부문

“친환경 K-패키징으로 세계시장 공략”



최 봉 규  
(주)천일 대표이사

Q. 먼저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소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도 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포장인 분들과 협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5회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과 후원해주신 한용교 회장님께서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년간 몸 담아왔던 포장업계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바지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91년도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포장재 제조 업체인 천일산업을 시작으로 2010년 식품포장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주)천일을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창기 숨쉬는 포장재와 향기나는 필름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이 캐시카우가 되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풀무원, CJ 제일제당, 오뚜기 등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에 일반 포장재 외에도 증기배출포장재, 저온실링용 액상포장재, 레트로트 포장재 등 다양한 기능성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 4회를 연임하며 조합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합원의 신뢰, 협동, 배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조합원 교육, 해외전시회 참관, 업종별 분과위원회 활동 등 조합원을 위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공동구매 및 판매 등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상호신뢰는 조합이 우수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융합 중앙회 회장의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Q. 포장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을 했을 때와 일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액상소스용 필름을 순수



▲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출진흥 부문 상을 수상한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사의 기술로 대체한 일이었습니다. 포장업계에서는 일본 제품이 아직도 기술력이 더 좋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수입 대체를 통해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일조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큼니다.

그리고 쿠바 산업부 포장국으로부터 합작 요청을 받거나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액상 레토르트 제품 관련 기술이전 요청을 받는 등의 일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서술하였지만, 창업 당시 회사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던 기술이 바로 숨쉬는 포장재와 향기나는 필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포장업도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술에 대한 집념이 해외 수출과 해외 수입품의 대체, 해외에서의 포장 관련 협업 요청 등의 결실을 맺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포장업계의 미래는 ‘환경 친화’입니다. 플라스틱 제품들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지만, 언론과 정부로부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한평생을 포장업계에 몸 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개발하고 공공분야에서 회수만 잘 된다면, 플라스틱도 얼마든지 친환경적인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해오고 있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결실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재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K-푸드에 반드시 필요한 K-패키징을 개발하여 플라스틱 포장산업,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부문**

**“안전하고 실용적 포장 연구”**



박 정 우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Q 먼저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에 열중하여 포장의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구대

학교에서 포장이라는 분야를 알려주시고 강의를 해주신 김수일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Q. 학교생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포장학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대학에서 패키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또는 패키징을 간략히 정의한다면?**

A. 포장은 드레스(dress)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받았을 때, 혹은 제품을 구매할 때에



▲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 상을 수상한 박정우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접하는 첫인상으로써 소비자의 기분과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화학과 관련된 공부를 진행하면서 안전한 포장재와 실용성 있는 포장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장학생 부문**

**“비대면 사회를 공략할 수 있는 패키징 연구”**



신 동 현  
연세대학교패키징학과

**Q. 먼저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장과 관련된 학문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발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포장의 역할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의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학업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학교생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패키징 및 물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21학년도 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학생회를 이끌며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포장의 역할과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행사를 기획한 경험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컨대 코리아팩 스페셜에 참여한 일과 패키징 및 물

류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버스킹 행사 등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 학업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학생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 대학에서 패키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또는 패키징을 간략히 정의한다면?**

A.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는 포장은 단순히 제품의 보호와 어느 정도의 마케팅적 기능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재료부터 마케팅, 인쇄, 디자인 등의 심화과목을 수강하며 제품의 완성도는 결국 패키징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포장과 관련된 학문을 수강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패키징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성숙하게 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1년 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 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품포장에 큰 관심이 있는 저는 직무와 연관된 과목들을 모두 수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사회를 공략할 수 있는 패키징’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자 있습니다. 한국 포장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